

**사순절 네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sup>TH</sup> SUNDAY IN LENT**

주후 2022년 3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4 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일53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7 번 사순절 (4)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누가복음(Luke) 136-9</b>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찬양대
설 교 Sermon	<b>“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완전하신 나의 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7 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통일 53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늘 조금해 했고,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43: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개역개정 **눅13:8**)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NIV **Luke13: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7 (주일)	3/28 (월)	3/29 (화)	3/30 (수)	3/31 (목)	4/1 (금)	4/2 (토)
	출38	출39	출40	레1	레2,3	레4	레5
본문	요17	요18	요19	요20	요21	시1,2	시3,4
	잠14	잠15	잠16	잠17	잠18	잠19	잠20
	빌1	빌2	빌3	빌4	골1	골2	골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30 오후7:30)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삿16:23-31)
토요 새벽기도회 (4/2 오전6:30)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시75:1-10)

**지난 주일(3/20)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9)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눅 13:18-2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눅13:18)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몸철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 식물(겨자씨)과 일상에서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평범한 식재료(누룩)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겨자씨(헬라어로, kokko-sinaeos)는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될 때, 갈릴리 호수 일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 풀이었기에, 이러한 잡초를 자신의 채소밭에다 심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이것을 자신의 채소밭에 심었다고 해도, 그리고 이것에 (아무리) 정성을 쏟았다고 해도, 겨자씨는 (결코) 커다란 나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처럼 난해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1)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주위를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고, 2)둘째,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밭에다 옮겨 심어주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훨씬 뛰어 넘기 때문이며, 3)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변화를 함께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